“제천이 환희라 제불이 찬탄하니 국토의 경사”

꽃은 붉고 향소리 그윽하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제방 선원에서 정진하던 선원대중이 하안거를 성만하고 산문을 나서게 되었도다.

오직 화두참구의 일념으로 정진하는 선방에 폭염은 오히려 서늘했고, 구룡지 백일홍은 더욱 불게 피었으며 무풍한송은 그 향기 더욱 그윽하게 되었도다.

안거가 여법하게 시행되고 화두참구의 수행가풍으로 정진하는 종단의 수행전통은 참으로 수승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일이로다.

종문(宗門)의 수행자들이 정법안(正法眼)을 갖추었으니 제천(諸天)이 환희하고 제불이 찬탄하시니 이는 국토의 경사로다.

안거를 마치고 산문을 나서는 수행자여!

북통 같은 큰 걸망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간절하게 깨달음을 구하는 이에게 어떤 향기를 전해줄 수 있으며, 대립과 갈등으로 분쟁이 쉬지 않는 세상 곳곳에서 쓸 수 있는 처방은 무엇이며, 전염병과 전쟁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류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은 무엇인가?

간절하게 준비하고 점검해서 걸음걸음은 바른 법이 활용되도록 하고, 하는 말마다 무진법문이 되게 해야만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시주의 정성에 보답하는 수행자라 하리라.

영축산의 소식을 아는가?

꽃은 붉고 향소리 그윽하다 말하리라.

不聞聞自性하고
不見見眞心이라
心性都忘處에
虛明水月臨이로다

듣지 않으면서 성품을 듣고
보지 않으면서 참마음을 본다
마음과 성품 모두 잊은 곳
텅 비고 맑아 달이 물에 비치네

水上泥牛耕月色하고
雲中木馬掣風光이로다
威音古調虛空骨이요
孤鶴一聲天外長이로다

물 위 진흙소는 달빛을 갈고
구름 속 목마는 풍광을 끌고 간다.
위음왕 옛 곡조는 허공의 골격이요
외로운 학의 소리 허공 밖에 길어라.

다리 아래 두자 석자 됨을 아는가

팔공총림 방장 진제 대종사



順水使船猶自可어니와
逆風把柁世間稀라.
雖然好箇擔板漢이나
到頭未免落便宜로다.
什麽人 恁麽來오?

흐르는 물에 배를 띄움은 오히려 쉬움이나
바람을 거슬러 키(柁)를 잡음은 세간에 드물이라.
비록 이 좋은 담판한(擔板漢)이나
마침내 편의(便宜)에 떨어짐을 면치 못함이로다.
어떤 분이 이렇게 옴인고?

금일은 임인년 하안거 해제일입니다. 산문을 폐쇄하고 삼복의 무더위 속에서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석 달 동안 앉아 정진하는데도 화두가 순일(純一)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화두를 챙기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의 번뇌망상과 혼침으로 시간을 다 빼앗겼기 때문이다.

중생들은 전생의 모든 업장의 습기가 태산처럼 높고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어닥쳐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업식이 마음가운데 자리잡고 주인노릇을 하여 귀중한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부처님의 대도(大道)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공부는 한 번의 발심이나 얕은 신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게으른 생각이나 방일한 생활을 떠나 매일 매일, 시시각각으로 발심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또 다져야 할 것이다.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앉으나 서나, 가나오나, 자나 깨나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기를 하루에도 천번 만번 하여 흐르는 시냇물처럼 이어지게 하여야 할 것이라.

萬仞峯頭坐하여
呵佛罵祖나
脚下數三尺을 會也麽?

만 길이나 되는 높은 산봉우리에 앉아서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꾸짖음이나 다리 아래 두 자, 석 자가 됨을 아느냐?

명안 납승은 깨달음으로 법칙 삼느니라

해인총림 방장 원각 대종사



광동성 소주(韶州)땅 운문산(雲門山)의 문언(文偃)선사는 주장자를 대중에게 보이며 말했습니다. “주장자가 용이 되어 건곤을 삼켰거늘 산하대지는 어디에서 생겼단 말인가?”

대중들은 묵연히 듣고만 있을 뿐 누구 하나 감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뒷날 장로자각종색(長蘆慈覺宗賾) 선사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한 마디 덧붙였습니다.

“주장자는 다만 나무 일 뿐이다. 용으로 변한 적도 없고 건곤을 삼킨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산하대지가 뚜렷이 남아있는 것이다.”

선종이 종문(宗門)을 개창한 이래로 결제를 마친 선가의 운수납자들은 바람을 온몸으로 맞고서 풀을 헤치며 지팡이를 주장자 삼아 한 걸음 한걸음 옮기면서 제방의 선지식을 찾아 다녔습니다. 가는 회상(會上)마다 어김없이 법상에는 수많은 명안종사들의 주장자 법문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풍은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덕산선감 선사에게 주장자는 방(棒)이 되었고 또 주장자는 천변만화(千變萬化)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때로는 납자를 경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납자들의 눈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운문선사와 종색선사처럼 서로의 안목을 내보이는 법 거량의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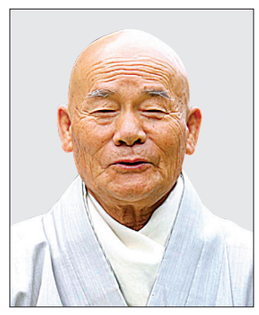
한여름 열기 속에서 어느새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 때에는 선원에 남아서 정진하거나 산문 밖을 나가 선지식이나 도반을 찾고 처소를 가려 자유스러운 가운데 더욱 열심히 정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허송세월할 수가 있습니다. 제불조사(諸佛祖師)가 옛날에는 모두 우리와 같은 범부였습니다. 그가 이미 장부요 나도 또한 장부거니 다만 하지 않을지언정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진을 잘하도록 합시다.

四聖六凡以佛爲極이나.
明眼衲僧以悟爲則이니라.

성현과 범부는 부처로써 극칙을 삼지만 명안납승은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느니라.

해제는 만행, 공부 양식은 보살행

덕숭총림 방장 달하 대종사



천안대비로도 뚫어볼 수 없는 것이 바람을 따라 비가 되어 앞산을 지나간다. 졸지마라! 조는 것이 법문이라면 재상 딸이 백정 집에 시집가는 꼴이다. 천년 竹 만년 松이여! 가지마다 잎새마다 지지엽엽이 모두 다 한가지로 같구나. 참선을 아는 四海玄學者에게 말한다. 動手無非觸祖翁. 손발 움직임이 무한청풍 맑은 바람 祖師家風 아닌 것이 없네!

만공스님 법문입니다.

보고 듣고 알 수 없다. 이 뭘까? 화두가 제자리니 지수화풍이 제자리다. 身心이 골라져 무장해제라, 바람이 부드럽다. 만고에 바다를 걸으니 발이 물이라, 그래서 滿足인가? 누려도 가볍기만 하니 그래서 洽足인가? 출렁출렁 파도치니 과연 充足이로다.

경허스님은 연암 산 아래 길에 들사람 일없어 무사태평가라 했다. 앉은 자리가 더 이상 높을 것이 없으니 다 보인다. 깊어 흔적이 없고 찌꺼기가 없으니 순간순간 시작이요, 출발이다. ‘그때그때 맞게’ 가 是曰 中道바람이다.

보이면 범할 수가 없다. 불덩어리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나? 소상히 드러나는데 헛디딜 일이 없다. 아닌 길은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한다.

낮춰서 비워서 겸허하게 대중에게 도움이 되자. 大衆이 부처님이다. 활짝 열지 못해서 도움이 될 여유가 없으면 미끄러진다. 길은 언제나 환하게 뚫려있다. 몸도 마음도 호흡도 길이다. 시원시원하게 열려있는 길이다. 길은 무리가 없다. 억지가 없다. 힘들어도 無事太平歌라. 길에서 울려오는 바람, 그 바람이 산천을 숨 쉬게 한다.

해제는 만행이다. 마하반야바라밀! 놀라 터져 나오는 감탄의 외마디 마하! 내가 감동한 곱 곱으로 생명들을 감동시키자. 통풍시키자.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이 공부 양식은 보살행이다. 핏기 있을 때 몰아붙이자.

이뭘까? 고불이요, 태어나기 전이다.
서리어 한 모양으로 둥그렇네.
석가도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을
가섭이 어떻게 능히 전한다고 하느냐
나무아미타불!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10·27법난 추념

전국승려문예공모전

10·27법난이란

1980년 10월 신군부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라는 미명하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한 전국의 사찰을 급습하여 스님 및 불교계 인사들과 민간인 관계자들을 강제연행하고 고문과 폭행으로 인권을 유린하였고 신성한 법당을 짓밟는 등 불교계를 강제로 탄압을 하였습니다. 명분은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합니다.

전국승려문예공모전의 취지

10·27법난이 발발한지 42년이 지났지만 아픈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일제강점기는 끝났지만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듯이, 10·27법난 역시 그 고통과 슬픔을 겪은 스님들이 생존하고 있는 이상 그저 옛날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처절하고 아픈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출가자들의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문예작품을 통해 10·27법난피해에 대한 치유와 종교적 평화정신을 널리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주제
- 10.27법난의 진실, 역사적 상처의 치유, 화해 상생의 정신 확산 등
- 종교적 평화정신의 고취

공모일정 : 5월 25일 ~ **8월 19일**
공모대상 : 스님(학인스님 포함)
공모부문 : 시(3편 이내) / 산문 (1편 이상)
제출규격 : 시 산문 모두 ‘한글’ 파일작성(제목 15p, 본문 11p)
제 출 량 : 시 자율 / 산문 A4 2페이지 이상
시상자 발표 : 9월 초(예정)
시 상 식 : 10.27법난 추념법회 중 진행예정
참고자료 : YouTube 10.27법난

시상내역(16편 / 15,000,000원 상금)

구분	시 상 수	부 상	총상금
대 상	2편(부문별 각 1편)	상장 및 상금 300만원	600만원
우수상	4편(부문별 각 2편)	상장 및 상금 100만원	400만원
장려상	10편(부문별 각 5편)	상장 및 상금 50만원	500만원

접수방법

접 수 처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 02-730-4488)
접수방법 : • 홈페이지 접수 : 응모하기 메뉴에서 작품 파일 등록(www.ibulgyo.com)
• 우편 : 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2층
10.27법난전국승려문예공모전 담당자 앞

주의사항
- 홈페이지 접수 시 시·산문은 한글파일로 첨부할 것
- 기존에 출품되지 않은 신작이어야 하며 순수한 창작물에 한합니다.
-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응모작품이 순수한 창작물이 아닌 모방, 표절, 대리 작성된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에 이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일상자의 판권 및 저작권 등 제반 권리는 주최측에 귀속됩니다.
- 참가비 없음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주관 불교신문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제3회 전통문화사진공모전 최우수작 '규봉암의 봄'